

'5·18 44주년' 오월정신 헌법 수록 원년 만들자

정치권, 22대 국회서 개헌 추진 강 시장, 여야 원내대표에 요청 민주 "공감대 형성...반드시 처리" 尹 18일 기념식 메시지에 관심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오월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2주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을 차기 국회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올해를 5·18 헌법 전문 수록 원년으로 삼았다"며 "(이는) 22대 국회의 과제이기도 한데, 어쩌면 국회가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은 개헌이 아닌가 싶다"고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여야 이견도 없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개헌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광주 지역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여소야대'를 형성한 민주당은 적극적인 공세로 오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연 정진욱 동남갑 당선인은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여야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헌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개헌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은 조만간 개헌 특위를 조성해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을 주축으로 개헌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난관이 많겠지만 22대 국회에서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도 개헌 의지가 담긴 강경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대나무축제 즐기는 관광객 부처님오신날인 15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담양 죽녹원과 관방천 일대에서 열린 제23회 대나무축제에서 징검다리를 건너고 대나무 뗏목을 타며 신록의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선 후 첫 행선지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명록에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5·18 4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18일에도 비례대표 당선인 전원과 함께 광주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개헌할 때 오월 정신을 헌법에 담은 부분은 정당 간 반대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포괄적으로 개헌을 해서 오월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강 "불교계 민주화 헌신"... 김 "화쟁 정신'으로 화합"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

강기정 광주시장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서구 무각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아파한다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심'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념주

간을 맞아 불교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44년 전 광주는 외로웠지만, 오늘 광주는 5·18을 기억하는 친구가 많다"며 "덕분에 광주는 인권도시로 세계 속에 우뚝 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의 도시가 됐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두려움 없이 싸웠던 불교계와 불자 여

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아파한다는 자비심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이자 광주의 정신, 5·18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며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봉축 메시지

를 통해 "불교의 '화쟁(和靜) 정신'을 되살려 도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외적으로 계속되는 국제 갈등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국가이기주의는 국제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양극화와 불신이 심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위기와 변화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불교의 '화쟁 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의 가피(加被)로운 세상이 등불처럼 환히 밝혀지길 발원한다"며 "특히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에 담긴 뜻처럼, 평화와 공생의 불교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민 모두 큰 상상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최권범·곽지혜 기자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민주역사 골든벨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민주문화제의 일환으로 민주역사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도새기기 위한 민주역사 골든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3:20-15:00
장소 목포덕인중학교 우정관
참여학생 목포덕인중학교 3학년 전체
진행방법 개인별 서바이벌 퀴즈 골든벨 대회
시상내역 골든벨 수상자 시상품 제공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주최/주관 전남서부보훈지청